

중앙회

호우 및 태풍에 의한 재해
농립부에 조속한 지원건의

지난 중부북부의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오리사육농가의 심각한 피해와 관련해서 본회는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8월 11일 농립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이번 중부북부의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경기도 연천, 파주, 철원지역의 오리사육농가들은 침수로 인해 많은 오리가 폐사됐으며 전라도 광주, 나주, 영암등 지역에서는 태풍에 의해 그 피해액이 오리폐사 3만2천수 금액상으로 1억2천만원, 축사붕괴 2만3백78평에 64억1천6백20만원등 총 65억3천6백2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피해농가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여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축사를 지은지 오래되어 정식 축사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농가가 많아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생계가 막막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피해농가의 경우 재해복구시설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농가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축사를 복구할 수 있는 신속한 자금집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피해농가는 정부의 시설자금 지

급 지원시 우선하여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장기 축산발전 투융자 계획에
따른 건의문 제출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조 5천1백9억원을 투자하게 될 중장기 축산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본회는 지난 8월 9일 오리업도 이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한 건의문을 농립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본회는 중장기 축산발전 투융자 계획에 오리업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전업경영체 육성목표인 2004년까지 2만호를 육성한다는 목표에도 오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축산전업경영체 육성 계획에 오리업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동시에 오리업의 전업경영체 기준을 육용오리 1만5천수 이상, 2백호까지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같은 기준설정의 근거로 본회는 축산물 생산의 50%이상을 담당토록하는 정부의 목표와 농가소득을 4천-4천5백만원으로 설정한 정부의 목표를 기준으로 이같이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산오리 증명서 발급

본회는 지난 7월13일 부산의 영남축산에서 발급을 요청한 국산오리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국산오리 증명서는 영남축산이 거래하는 요식업소가 이지역 홍보매체에 자사 광고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홍보매체에서 국산오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므로써 이뤄졌다.

증명서에서 본회는 영남축산에서 유통하고 있는 오리는 충북진천의 오리사육농가에서 사육되어 전남 광주도계장에서 지육화되어 유통되는 국내산 오리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증명서가 발급됐다.

오리도양 범죄행위 행당관청에 강력항의 및 변호자료 제출

지난달 7월2일 경기도 의왕시 청계에서 요식업을 하면서 오리를 잡아 주변 요식업소에 공급하는 한업자가 긴급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 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사유는 정확치 않으나 본회가 입수한 경찰조사 범죄사실은 가축의 도살해체는 적법한 장소내지는 관할도지사의 고시지역된 곳에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오리9천7백마리를 도살해체하고 축산물 판매영업을 하는 자는 관할시도지사에 신고후 이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신고없

이 판매영업을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관련 본회는 해당경찰관서와 해당 시 축산관련담당자에게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오리는 2002년까지 법시행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상기시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이와관련해 이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해당 법조문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당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업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이업자의 판결이 주목되며 만일 이업자가 법을 어긴사항이라면 오리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똑같은 사실로 민원을 제기 행당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강원도의 한 회원은 본회의 관련법조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간염질병에 의한 피해 회원 백신업체에 시험의뢰

본회는 최근 3일령에서 10일령 사이에 20-50%의 새끼오리가 폐사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회원에 대해서 이백신을 실증실험중인 녹색자 수의약품에 백신접종 시험을 해줄 것을 요청했

다.

경기도 용인과 안성지역의 이 회원들은 본회의 요청에 의해 녹십자수의약품측으로부터 시험 백신을 공급받아 시험중에 있으나 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당초보다 폐사율은 줄었으나 시험결과를 판단하기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와관련하여 농장관계자는 현재 투약한 결과로는 폐사가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백신에 대한 정확한 결과평가는 2차 3차 백신한 군의 일령이 20일을 넘어서는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도지회

임원간담회 개최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이덕행)는 지난 8월23일 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간담회를 열어 태풍에 의한 피해대책 및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등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태풍에 의해 대부분의 회원들이 피해를 입어 새끼오리 및 육용오리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재해대책이 과수농가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오리사육농가들의 피해대책에는 등한시하는 것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차원에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재해를 입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무허가 축사로 행정당국은 이같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새끼오리 육용오리 가격 문제는 향후 육용오리 출하일령과 소비상황을 지켜 본후에 다음 운영이사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의견은 부화장들의 여름철 생산성이 저하되어 현재의 새끼오리 시세로는 부화장들의 운영이 어렵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사육농가의 입장은 현재 육용오리 출하상황이 6월에 비해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지회가 4천2백원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끼가격의 인상은 육용오리 가격역시 인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같은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데서 비롯됐다.

한편 지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5월 월례회의에서 사육,부화,유통분과운영위원회의 독자적인 활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의 운영위원회에서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또 참석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구조조정문제는 향후 참석여부를 지켜보면서 결정기로 했다.